

원스톱 지원센터...해남군 귀농·귀촌사업 탄력

농식품부 공모 선정...덕정리 폐교에 내년 상반기 건립
농촌교육·체험장 등 조성 2016년까지 2100명 유치

해남군이 민선 6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대도시 주민유치 공모에 해남군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폐교를 활용한 귀농·귀촌 희망센터 건립 사업계획이 선정돼 앞으로 3년간 국비 3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폐교를 활용한 귀농·귀촌 희망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군은 총사업비 7억8000만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된 덕정리 둔포에 위치한 옛 계곡중학교(폐교) 2층 건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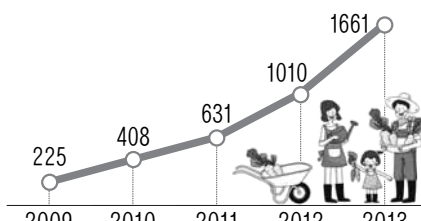
부지(1만여㎡)를 사들이고 리모델링해 '도시민유치 지원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주희망자가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체류형 거주공간과 농촌체험장, 농촌생활 프로그램 교육장, 정보제공 학습장, 농기계 활용교육장 등도 조성한다.

특히 이주 희망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해남 완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은 오는 2016년까지 2100

■ 해남군 연도별 귀농인수 <단위:명>



명(1050가구)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수산업 1조원 시대를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08년 12월 '해남군 귀농인 조례'를 제정한 이후 농가주택 수리비와 귀농인 농업인턴,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인 용자지원(농업창업, 농가주택 구입) 등 다양한 귀농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농가주택 수리비는 지방수리와 화장실 개량 등 비용(세대당 500만원 한도)을 일

부 지원하며, 귀농인 농업인턴은 농업에 생소한 귀농자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최대 6개월 동안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 돕는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귀농교육생 현장실습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대표적인 농·어업 도시인 해남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불편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며 "귀농·귀촌 희망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돼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지역 귀농자는 2009년 225명(87세대), 2011년 223명(87세대), 2013년 651명(244세대), 올 상반기에는 327명(121세대)이 귀농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지역 중학생들이 지난 30일 완도교육지원청 주최의 '내고장 소개 영어표현력 경연대회'에서 기량을 겨루고 있다. <완도교육지원청 제공>

내고장 완도 소개 영어구연 경연대회

완도교육지원청...신지중·완도여중 팀 금상 수상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흥상)은 지난 30일 영어교육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발굴과 외국어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내고장 소개 영어표현력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학교교육과정과 영어수업을 충실히 이수한 관내 중학생 69명(20개팀)이 참가해 슬라이드와 알림판, 연극, 팝송 등 다양한 표현매체를 활용해 완도의 관광명소와 특산품에 대해 영어로 소개하며 기량을 겨뤘다.

대회결과 완도 신지중 '신지 토크(Sinji Talk)팀'(2학년)과 완도여중 '빙그레 팀'(1학년)이 금상을 수상했다.

학생들을 지도한 완도여중 주미진 교사는 "국제 해조류박람회와 더불어 완도를 찾는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이 고향을 영어로 소개해 보면서 민간의 외국어로서의 사명감 또한 갖게 됐다"며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참신성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이흥상 교육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꾸준히 키워 나간다면 역량있는 글로벌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실용적인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 화산면 해창주조장

기자·블로거 등 30명 초청

'...90년 정원' 팸투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된 해남군 화산면 해창주조장(대표 오병인)이 4일 '해남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90년 정원'이라는 테마로 팸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팸투어에는 여행·사진기자, 여행블로거를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 SNS 기자단 등 30여명이 참여해 해남지역 관광지와 해남 막걸리를 시음하며 해남의 맛과 맛을 만끽한다.

팸투어단은 우수영 울돌목에 방문해 총무공 이순신 장군과 호남민초가 함께 이룬 명량대첩 승전지를 둘러본 후 해창주조장으로 이동해 고구마 캐기와 막걸리 제조과정 견학, 막걸리 시음, 두레박 체험, 지역특산물 활용한 요리체험 등을 한다. 오 대표는 해창막걸리 맛에 반해 8년간 귀농해 해남에서 생산된 쌀로 막걸리를 빚고 있다.

오병인 대표는 "700여 년 된 나무들이 즐비한 일본식 정원에서 막걸리를 시음하고, 해남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내용이 SNS 등에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창주조장은 1923년 일본인 시바다 히로헤이가 정미소와 양조장을 운영하던 곳으로, 당시 조성된 일본식 정원에 아름다운 고목이 즐비한 정경으로 유명하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군 공직자 친절교육

진도군 공직자들이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부3.0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진도군은 양지현 강사를 초청,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공직자들이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부3.0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진도군은 양지현 강사를 초청,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진도군 제공>

재배농 45명 공동 생산·공동 판매...해남버섯(주) 창립

해남지역 버섯재배 농업인들이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버섯 재배농업인 45명은 1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지난 27일 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업회사법인 해남버섯(주) 창립총회를 가졌다.

대표이사로는 김항익, 이사에는 민태홍 외 6명, 감사에는 박성길 외 1명, 고문 윤재평을 선임하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해남버섯(주)은 앞으로 버섯의 품질개선을 통해 고품질·고수익 버섯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공동선별과 공동출하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량소비처 등 다양한 납품처를 확보해 해남버섯의 전국 판매를 이뤄간다는 목표다.

군은 향후 운영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는 등 중앙정부와 전남도 정책사업과 연계해

사업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항익 대표이사는 "전국에서 제일 잘 운영되는 농업회사가 될 수 있도록 참여주주 모두 함께 하나로 뚝뚝 뚝뚝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철환 군수는 "주식회사 출범을 통해 버섯 농업인 모두가 뜻을 같이해 내실있는 운영으로 발전해 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민주평통 전남 서부권 11개 시·군 자문위 연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 협의회(회장 최번부)는 최근 1박2일간 완도를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대강당에서 민주평통 전남 서부권 11개 시·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는 송영수 민주평통 전남 부회장과 신우철 군수, 시·군회장 유관기관 단체장 등 260여 명이 참석했다.

최번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 협의회장이 최근 완도를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대강당에서 열린 전남 서부권 11개 시·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연수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민주평통 완도군협의회 제공>



최번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 협의회장이 최근 완도를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대강당에서 열린 전남 서부권 11개 시·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연수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민주평통 완도군협의회 제공>

'남북관계 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한 안보강의를 가졌다. 이튿날에는 '통일퀴즈', '통일 사행시'와 시·군 협의회 장기지랑 등을 가지며 자문위원간 유대감을 다졌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중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9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배 과수원 2,784㎡ 공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봉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 23억(보2억 월1,00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도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육,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해남군 대흥사부근 민박집 3.8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급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번지
답 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 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공장부지 “땅” 급매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73
전 1,100평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572-6
답 121평 계획관리지역
용자 9천만원
매가 1억 8천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